

방산 및 수출업체 대표를 위한 국방부장관 주재 리셉션 성황리에 열려...



지난 한 해 동안 방산 현장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방산 및 수출업체장들은 한해를 정리하고, 새해에는 방위산업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것을 다짐했다

방위 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헌신한 방산 업체장 및 방산관련 인사들의 노고를 위로 격려하기 위한 리셉션이 12월 9일 李炳台 국방부장관 주재로 국방회관에서 열렸다.

방산 및 수출업체 대표와 정부측 관계관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리셉션에서 李炳台 국방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국가를 튼튼히 방위해 온 원동력으로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방산업체장과 생산현장에서 땀흘린 노동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20여년전 방위산업을 처음 시작했던 자세로 방위산업 중흥을 위해 다시 시작할 것을 제의했다.

이어 柳纘佑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장은 답사를 통해 최근 방산업계가 조달물량의 감소에 따른 가동률 저하와 방산전용 시설의 유희화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

하고, 앞으로 방위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기술선진화와 경영합리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덧붙여 방위산업이 완벽한 自主國防의 기틀을 마련하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속적인 방위산업 육성정책을 배려하여 업계를 성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리셉션에서 李炳台 국방부 장관은 방산업체 대표의 노고에 사의를 표했다 (사진 왼쪽부터 黃明秀 국방위원장, 柳纘佑 防振會 회장, 李炳台 장관)

